

2 0 1 5  
SPRING  
V o l . 4 2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 원익인



WONIK

自由  
+  
疏通  
+  
幸福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人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COVERSTORY



04

## Cover story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S

08

## Wonik News

원익인 뉴스  
원익가족소식

18

## Cover story

CEO Column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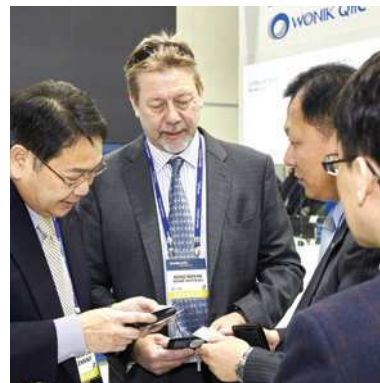
# CONTENTS

## COVER STORY



##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04 Cover story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S

### 08 Wonik News

원익사 뉴스  
원익가족소식

### 18 Cover story

CEO Column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 22 Wonik Business

세미콘코리아  
2015

### 28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더블에이



##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 L I F E S T O R Y



### 32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

### 36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 1기  
Q & A

### 48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 1기 INTERVIEW  
(주)원익아이피에스

### 54 Zoom in

(주)원익IPS  
볼링동호회 '엔도르핀' (endor+pin)

### 58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영업1팀  
조영민 과장(유럽 여행)

### 64 Musical

뮤지컬 'PHANTOM'

### 66 Exhibition

마블 '어벤저스 스테이션'

### 68 Health

춘곤증

### 70 Economy

첫월급관리

# 직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SAS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S(쌔스)는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미국 본사와 한국을 포함, 세계 각지의 지사에 1만4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SAS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하는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에는 구글에 밀려 2위에 올랐지만 구글이 1998년 창업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976년 창업한 SAS가 40여 년 동안 쌓아온 안정성과 노하우에 주목할 만하다. 직원들이 행복하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SAS의 비결은 무엇일까.



##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

짐 굿나잇(Jim Goodnight) 회장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이라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SAS를 창업할 당시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직원이라면 이런 걸 기대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SAS의 직원복지 프로그램은 직원들 개인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그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보내는 시간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이나 질병에 관한 문제, 미용실, 세탁소 이용 등이다. “직원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생활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고 말하는 짐 굿나잇 회장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

화 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한다.

6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시에 위치한 SAS 본사에는 병원, 보육 시설, 진학상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와 요리사, 보육교사, 정원사, 피트니스 전문 강사는 모두 SAS의 정식 직원이다.

또한, SAS의 모든 직원들은 평등하다. 짐 굿나잇 회장의 집무실은 신입사원의 사무실과 크기가 같고, SAS는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일주일에 35시간,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각자가 스케줄을 짜서 일한다. 짐 굿나잇 회장은 주 35시간 근무에 대해 “그보다 많이 일하는 건 낭비”라며 “밤늦게 일하는 것보다 다음 날 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특히 저녁 회식에 대해서도 동료애와 애사심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건 직장과 가족의

균형이며, 기업이 직원과 그 가정의 화목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기업에 애정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 보장하는 경영철학

SAS는 임원들의 인사고과에 자신의 팀원들의 고용 유지율을 포함시킨다.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가는 나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





에는 SAS의 일원이 된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경영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SAS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다.

만약 어떤 직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SAS는 이 직원에게 상담전문가를 붙여준다. 90일 동안 꾸준히 그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킨 후, 90일이 지난 뒤에도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가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한다.



이처럼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짐 굿나잇 회장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짐 굿나잇 회장은 “직원들의 마음 속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며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도전하게 하면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회사 곳곳에 영감을 주는 요소를 만들었다. SAS 본사에는 짐 굿나잇 회장 부부가 수집한 예술



작품 3천여 점을 포함한 4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를 비롯해 회의실, 휴식공간 등에는 영감을 자극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각, 그림, 그래피티 등이 가득 차 있다.

### 직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한 SA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2009년에 들어서면서 당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했다. 하지만, SAS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냈다. 구조 조정이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결국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짐 굿나잇 회장은 “2009년은 우리 회사로선 가장 생산적인 해였다. 이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고, 해고에 대해 걱정하거나 직원들 끼리 웅성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비절감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이를 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해 SAS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도 매출이 5% 성장했다.

### 원익의 ‘행복’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는 SAS처럼 원익 역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익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은 직원들과 그 가족이 행복할 때 원익이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익의 기업문화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다. ‘자유, 소통, 행복’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글로벌 No.1 기업으로 나아갈 원익의 미래가 기대된다.

글 윤보라 · 사진출처 SAS 홈페이지



## (주)원익

## 원익, 3월 7일 '이노젝터 론칭 세미나' 개최

## 피부개선 시술 핫 트렌드인 이노젝터 시술 노하우 공유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원익은 지난 3월 7일 역삼동 라움 레벤홀에서 '이노젝터 론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노젝터는 '마이크로젯 에너지에 의한 스킨 리모델링' 원리를 적용하여 회오리 공기압의 물리적 자극과 메조용액 주입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켜 피부를 재생하는 의료기기로 공기압이 회오리처럼 주입되어 '회오리 피부재생술' 또는 '보텍스 피부재생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노젝터는 세계 최초로 공기압을 이용한 니들리스와 일렬 멀티니들의 듀얼모드로 구성되어 리프팅, 흉터치료 등 피부재생과 주름개선, 메조시술 등 다양한 시술에 활용되고 있다. 피부속 퍼짐성이 우수하고 주입액 손실율과 통증 및 출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노젝터 론칭 세미나'는 초이스피부과 최광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첫째 연자로 중앙대학교병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가 '이노젝터의 원리와 피부과적 활용'을 주제로, 이어서 종로에스앤유피부과 여운철 원장이 '이노젝터 임상적용'에 대해서, 끝으로 예미원피부과 윤춘식 원장이 '이노젝터를 이용한 피부재생술'에 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별세션으로 리더스피부과 노낙경 원장이 바디컨투어링 의료기기인 '뱅크시 임상경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핸즈온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최근 주요 피부과 병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피부 시술의 핫 트렌드로 부각된 이노젝터를 비롯해 전 세계 유일한 비접촉 RF비만치료장비로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돋보이는 몸매관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뱅퀴시에 관한 임상사례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주)원익 헬스케어사업본부장 이창진 전무는 “국내 에스테틱 시술의 트렌드를 이끌기 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론칭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노젝터와 뱅퀴시가 대표적인 라인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환자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병원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원익

### 소통광장 시행

(주)원익은 2015년 3월 13일 원익빌딩 2층 AV룸에서 소통광장을 시행하였다. 팀장 이상의 임직원이 진행하던 기존의 경영회의 방식을 변경하여 전 임직원의 참석과 질의응답이 자유로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궁금한 점, 애러사항 등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주)원익은 매월 소통에 중점을 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임직원 모두가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주)원익큐엔씨

## (주)원익큐엔씨, 삼성전자 '2015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지난 2월 1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삼성전자 '2015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식이 개최되었다. '올해의 강소기업'은 협력사 가운데 잠재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혁신 의지가 강한 기업을 강소기업 후보

사로 선정하여 각 사업 분야에서 세계 5위, 국내 2위 이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는 35개의 후보사 중 원익큐엔씨를 포함하여 13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날 선정식에서는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근원 대표이사가 선정패를 수여받았으며, 이번 선정에 대하여 박근원 대표이사는 우리 원익QnC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다. 이 상은 퀴즈웨어 표면처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제품 국산화에 일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도체 설비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혁신 제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부분을 높에 인정을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삼성전자 강소기업 선정을 발판으로 더욱 더 성장해나갈 원익큐엔씨를 기대해본다.

## (주)원익큐엔씨

## (주)원익큐엔씨, 삼성전자 '혁신우수협력사' 선정

원익큐엔씨가 지난 3월 11일 개최된 '2015년 상생협력데이'에서 품질혁신부문 혁신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 활동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29개 협력사에 대한 시상과 함께 협력사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원익큐엔씨는 'Quartz 부품 국산화 및 세정 Process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반도체 공정별, 제품별, 공정누적막별 식각율을 계산하여 최적의 세정 Recipe 선정하고, MES를 이용하여 제품별 Weight Loss를 관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Quartz Ware Life Time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00만 원을 수여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 부문에 대한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이어가자'며 '협력사와 삼성이 소중한 동반자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엑시머 램프 시장 확대

일본 우시오가 독점해 온 산업용 엑시머 램프를 국내 기업 원익큐엔씨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거치며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올해부터 공격적인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엑시머 램프의 기술 완성도가 경쟁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산업용 램프는 일본과 독일이 우세하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에서 우시오가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국내 기술로 시장을 대체해 나간다는 포부다. 원익큐엔씨는 2003년 개발을 시작해 10년 이상 공을 들여왔으며 별도 해외기술 없이 자체 기술로 산업용 엑시머 램프를 개발했다. 원익큐엔씨는 “4~5년 전부터 제품 판매와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며 기술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붙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에 수출을 시작했고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익아이피에스

MP PLUS TFT 결성

지난 2월 원익아이피에스 조직개편의 뜨거운 감자는 MP PLUS TFT 결성이었다.

수 차례 TFT가 결성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TFT가 별도의 팀으로 구성된 적은 처음이다. MP PLUS TFT는 World BEST NO.1 장비 개발이라는 목표로 차세대 PECVD개발과 MAHA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도체 유관부서의 임직원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태욱 부사장이 TFT 총괄 책임으로 TFT장으로 는 박중오 부장이 임명되었다. TFT 멤버인 구중수 과장은 “제가 직무가 설계이다보니 그동안 일을 하고 업무를 배울 때 설계에 관련된 쪽으로만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TFT를 통해 공정, 부품 등 다른 부서원들과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니 타 부서의 업무까지 배울 수 있어서 장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라고 TFT 활동 소감을 말했다. TFT멤버 중 가장 막내인 하린 대리는 “World Best NO.1 장비 개발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라고 멋진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10개월동안 원익아이피에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 2015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



따사로운 햇살과 얇아진 옷차림을 보면 어느덧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전사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4월 10일 금요일 오후 봄맞이 대청소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약속했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서랍과 캐비닛에서 묵혀둔 먼지와 서류를 정리하였다. 생산기술센터 제조기술팀 최광업 부장은 직원들이 먼지 닦은 걸레를 손수 빨아주며 대청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모든 직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맞이 대청소를 즐기며 청소에 임하였다. 사무실과 회의실을 청소한 이후에는 담당구역을 정하여 외부청소를 진행하였는데 한달 전에 입사한 이학진 사원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부서원들과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단합이 되어 선배님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서가 단합하여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첫 대청소 소감을 말했다. 주차타워 청소를 맡은 경영지원본부는 하윤희 부사장님께서 직접 청소를 진두지휘하며 청소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부사장님의 솔선수범 덕분인지 경영지원본부 직원들은 정해진 구역을 넘어 다른 회사 앞까지 청소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이번 대청소로 겨울내 움추려있던 원익아이피에스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쳤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삼성전자 Best Partner Award

혁신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 삼성전자에 기여한 공로가 큰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 원익머트리얼즈는 Best Partner Award를 수상하였다.

2015년 1월 2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Topaz 홀에서 실시된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 원익머트리얼즈는 2014년 삼성전자 협력사 중 품질 대응 및 원가 절감 등의 협력 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되었으며, 삼성전자는 본 시상상을 통해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가속하여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 하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실시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사내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단순히 사내금연을 시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금연 실천을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금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 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사전검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흡연 의존도 및 건강을 확인하고, 금연 교육 및 개별상담 뿐만 아니라 금연보조지압기, 아로마 파이프, 은단 등을 무상 지급하고 금연기간 지속 및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금연보조제를 무상 지급 하였다. 회사는 금연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금연을 돕기로 하였다.



## 신원종합개발(주)

## 신원종합개발 포항득량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2월 14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572명중 453명이 참가한 조합원 투표 결과 98% 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날 행사에는 이병석 국회의원, 김희수 도의회 의원, 백인규 시의회의원, 김형국 조합장등 많은 귀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포항득량 재건축 정비사업은 북구 득량동 141번지 일원



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만5천315㎡ 에 연면적 9만4천816㎡ 로 지하2층~지상24층 규모로 아파트 6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회사는 금번 사업이 2014년 선포한 비전의 (국내 1위의 부동산개발 및 솔루션 제공회사) 1단계 전략목표인 '기존사업 차별화' (차별화된 자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리폼)의 첫 결과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영일 대표는 지난 7년동안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신원종합개발이 선정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경상도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께 신뢰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탁월한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종합개발(주)

신원종합개발 용인 마북동 자체 개발사업 확정!

신원종합개발이 용인 마북동 자체개발 사업을 맡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금번 사업은 시행사가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가 도급 공사만 하는 일반 아파트 사업과 달리 자체 사업으로 지을 아파트이며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신원종합개발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고객 요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우선 용인 마북동 자체개발 1차 사업은 신원종합개발이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며 지하 2층 지상 25층의 총 178세대의 규모로 신축된다. 2차 사업개요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박영일 대표는 신원종합개발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시공 위주의 단순 도급형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 개발 · 기획 · 파이낸싱 · 시공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디벨로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성장성 ·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2015년 상반기 조직 활성화 리더 워크숍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롯데연수원(경기도 오산시 소재)에서 상반기 리더십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리더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임원 및 그룹장 등 40여명의 리더가 참여한 가운데 초청 강의와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조별 자유 토론을 통해 원익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 실천 및 내재화 방안을 공유 하였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 강화와 부서 이기주의 극복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주)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임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2015년 새봄맞이 사내 탁구대회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5년 3월 2일 부터 4월 6일 까지 본사(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및 안성 공장에서 2015년 새봄맞이 사내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3종목에 40여명의 임직원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결승전은 4월 6일(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공장 탁구장에서 열린 응원속에 진행 되었 으며, 단식은 공정개발그룹 박상권 부장, 남자 복식은 공정개발그룹 구재진 과장, 전재운 과장 조, 혼합 복식은 HW개발그룹 조준형 과장, 이정민 과장 조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주)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임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씨엠에스랩

원익임직원 몰 오픈

(주)씨엠에스랩이 자사의 셀퓨전씨 / LIC / 루타브랜드를 세일가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원익 임직원분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직원 전용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패밀리세일을 기다리 지 않고 항시 전 품목은 기본 45%세일가에 구매가 가능하며, 매월 50종 이상의 특가 상품을 선정하여 최대 70%할인의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이트는 임직원만을 위한 전용 사이트로, 회원 가입시 계열사 정보 입력 등 관리자의 승인 후에만 회원가입이 승인되며 로그인시에만 해당제품의 판매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 [www.wonik-cms.co.kr](http://www.wonik-cms.co.kr)

모바일사이트 : [www.wonik-cms.co.kr/m](http://www.wonik-cms.co.kr/m)



(주)씨엠에스랩

## 조직문화활성화



(주)씨엠에스랩은 지난 2015년 2월 용인 롯데연수원에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나온 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TF A팀(팀원구성)과 TF B팀(팀장구성)을 구성하였고 TF A팀은 다이나믹하고 Fun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 등의 행사를, TF B팀은 제도적인 부분을 맡아 일주일에 1회씩 미팅을 하며 올 상반기 내 모든 안전에 대해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TF A팀은 2015. 4. 15 가정의 날을 4월의 행사일로 정하여 짝공과 조조영화 보기, 각 팀별로 판교맛집탐방하기, 분당중앙공원에서 벚꽃구경과 미션사진찍기 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매월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이며 수정보완을 통해 좋은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TF B팀은 2015. 4. 2 집중근무제 확립을 위하여 “Your Time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회의, 전화 등을 피하고 자기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직원의 아이디어와 공감대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씨엠에스랩을 기대해주세요.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  
이사는 (주)테라세미콘이 지  
난해 3월 원인으로 편입된  
이후 11월 대표이사로 정  
식 취임했다. 중요한 시기  
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만큼  
이재경 대표이사는 인터뷰  
내내 회사의 성장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  
내는 동시에 (주)테라세미콘  
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 “원익가족으로의 편입,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



“(주)테라세미콘이 원익가족 일원이 되면서 초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가 높아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대표이사는 “지난해 원익가족으로 편입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1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전했다”면서 “원익가족으로의 편입은 지난 몇 년간 업계 불황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테라세미콘이 재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근무 환경 개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 환경, 우수 인력 채용 및 육성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균형 잡힌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테라세미콘의 이재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주)테라세미콘의 강점이었던 스피드(빠른 의사결정), 민첩성(고객과 시장의 변화, 현장 대응 능력), 진취성(새로운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도전)은 살리되, 부서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했던 점과 비효율적인 회의문화, 목표 성과 관리체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원익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리더들의 변화가 소통과 협업 이끌어낸다.”

이재경 대표이사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기업문화는 ‘열린 생각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늘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즐겁게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주)테라세미콘의 변화를 위해 단위조직의 리더십 교육과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토론회, 외부 강사 초청 강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리더 뿐 아니라 임직원 전체의 개인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체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복지제도를 위해 균형 잡힌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외에도 이재경 대표이사는 최근 2~3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나타난 피로감과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리더 주관 간담회와 그간 소홀했던 봉사활동이나 여러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CEO뿐만 아니라 리더와 직원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고충과 제안을 듣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주)테라세미콘은 올해 신제품 조기 개발과 신규시장 개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력 설비인 Oxide/Anneal 반도체 장비와 LTPS Furnace, PI Cure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과 현재 개발 중인 반도체 ALD(Atomic Layer Deposition) 장비에 회사 역량을 집중해 올해 고객으로부터 개발 JEP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양산용 Model 설비를 납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화권 디스플레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고객별 맞춤형 차별화 전략과 DEMO 평가 및 영업, 기술 인력 전진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재경 대표이사는 “(주)테라세미콘을 Batch type 열처리 장비 분야에서 Worldwide No.1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주)테라세미콘이 원익으로 편입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기획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재경 대표이사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크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더욱더 미세화 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비교우위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신 공정 설비를 개발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다”라며 “(주)테라세미콘 전 직원들이 세계 1위 회사의 counterpart와 비교해 실력이 우위에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고, 회사는 각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과 협업하면서 단계별로 만들어간다면 분명 기회는 우리 것이 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경 대표이사는 “‘소통’이 잘 안되면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소통’이다. ‘소통’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공감, 동참이 (주)테라세미콘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 SECTION 01 | 自由

### 22 Wonik Business 세미콘코리아 2015



### 28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더블에이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원익의 도약! ‘세미콘코리아 2015’



반도체 공정기술의 최신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기술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2015’ (SEMICON Korea 2015)가 지난 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세미콘코리아’에는 전 세계 20개국 500여 기업이 참여해 총 1천800여 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했으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다.









‘세미콘코리아 2015’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최신 장비와 기술, 재료 등을 선보인 것은 물론, 반도체 산업 현황과 최신 전망을 살펴보고 미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심포지엄, 해외소자업체 및 구매 상담회, OEM 해외 장비업체 구매 상담회, 반도체 시장의 주요 화두를 다루는 세미나와 반도체 업계의 국제 표준을 소개하는 SEMI 표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축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원익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와 지난해 원익으로 편입된 (주)테라세미콘 등 총 4개 계열사가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장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전시회 첫 날에는 원익 이용한 회장과 이문용 부회장,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이사,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진중 대표이사,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등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는 (주)테라세미콘이 새롭게 합류, (주)원익아이피에스와 함께 부스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원익의 상징인 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꾸며진 원익의 부스는 독립된 미팅룸이 마련된 1, 2층 규모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주)원익큐엔씨와 (주)원익머트리얼즈가 함께 또 다른 부스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의 장을 열었다.





#### 국내 최고의 기술력, 관람객들 뜨거운 관심

먼저,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해 DPT(Double Patterning Technology) 개발로 신시장 진입에 성공, 이번 ‘세미콘코리아 2015’에서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 이사는 “DPT ALD Oxide는 이미 판매가 시작된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규시장 면에서도 올해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SK-Hynix와 해외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진출과 영업을 위한 인재를 채용,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매출과 성과가 매우 좋았다. 올해는 더욱 성장에 가속도를 낸다는 전략으로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주)테라세미콘은 이번 전시에서 New model 설비인 300SE(Pyro 공정), ELVA(ALD 공정)의 성능과 공정 능력을 설명, 특히 New model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신규 고객의 구매팀과 기획팀에서 (주)테라세미콘의 부스를 방문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였으며, 논의한 내용의 follow up을 통해 현재 2차 미팅 등 업무 연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CD 패널 제조공정 중 세정공정에 사용하는 장비에 적용하는 비접촉식 엑시머 램프(Excimer VUV Lamp)를 개발,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해 온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주)원익큐엔씨는 이번 전시에서 엑시머 램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원익큐엔씨는 “자체 개발한 엑시머 램프의 기술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올해는 국내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적인 전구체 제조업체 노바켄을 인수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이번 ‘세미콘코리아 2015’에서 실리콘 계열의 각종 전구체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노바켄은 전구체 가운데 Sin, SiO<sub>2</sub> 증착에 사용되는 HCDS를 생산하며, (주)원익머트리얼즈는 현재 충북 오창에 1만7천평 부지를 매입,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공정 미세화, 증착공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CVD, ALD 용 전구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HCDS를 비롯한 전구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국내 특수가스 시장에 이어 전구체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을 알렸다.



이처럼 원익의 4개 계열사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세계 반도체 시장 흐름 변화에 발 빠른 대응으로 이번 ‘세미콘코리아 2015’를 찾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세미콘코리아 2015’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원익의 미래가 기대된다.



## 우리는 경쟁 속 지속 가능한 공존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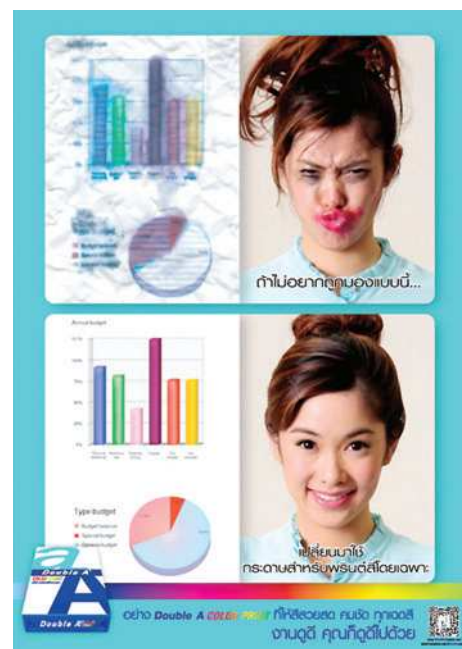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추구다. 매출과 이윤, 시장점유율, 비용 등 수치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이윤추구의 목적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 이미지 향상과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사회 공헌 활동 및 자선활동, 교육-문화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환경 파괴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들의 '친환경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녹색경영은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는 경영전략을 목표로,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보전 및 생태학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더불어 소비자의 호감을 유도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 친환경 기업 '더블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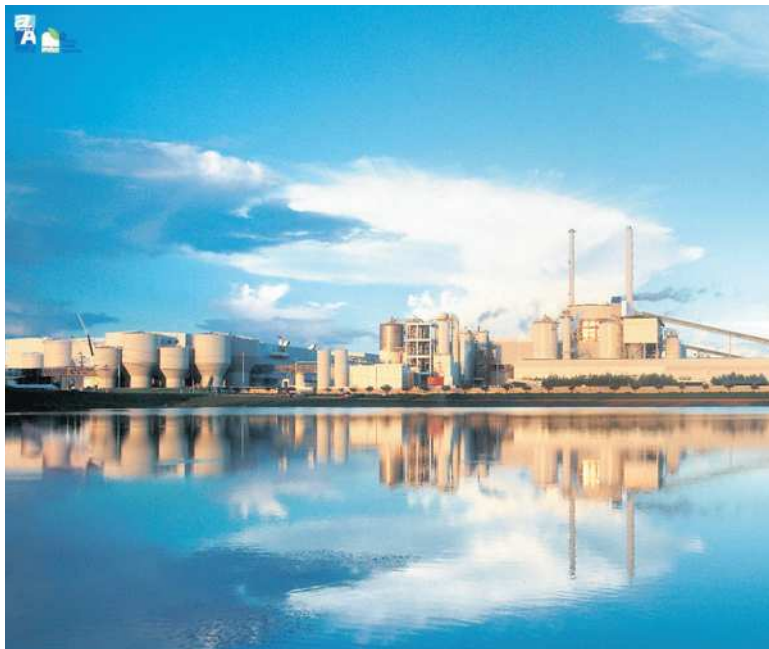
더블에이는 나무를 사용하는 제지기업임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 아닌,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1991년 태국에서 창립되어 2002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복사용 제지기업 더블에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아태지역과 유럽시장까지 발을 넓혀온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2012년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6,2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블에이가 이처럼 전세계 복사용지시장에서 자리잡은 비결은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는 친환경 경영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더블에이는 종이 제조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직접 키우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를 직접 마련한다. 또 펄프와 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도 버리지 않는다. 종이 원료를 제외하면 껍질과 목질부 등 나무의 절반이 남는데, 이를 따로 모아 연료로 사용한다. 종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화학 처리해서 화력발전소의 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자체 화력 발전소 생산량의 30%에 불과하다. 더블에이는 남은 전력을 모두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이는 연간 3억4천만L에 달하는 화석연료를 절감한다. 이처럼 더블에이는 원료 확보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프리미엄 퀄리티’의 복사용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더블에이의 ‘칸나’ 프로젝트

더블에이의 비즈니스 모델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칸나’ 프로젝트다. 더블에이가 사용하는 나무는 유칼립투스의 일종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종이의 원료인 펄프 함유량이 높다. 또 병충해에 강하고 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기에 논과 논 사이의 자투리 땅을 뜻하는 칸나에서 재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블에이는 태국 현지 농민들과 손잡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특수 묘목을 분양해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되사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더블에이는 150만 농가와 환경보증을 맺고 목재



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얻는 수익은 우리 돈으로 연간 1,650억원에 이른다. 결국 종이 원료로 사용하는 나무 재배는 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이익을 준다.

### 지속 가능한 공존

더블에이는 지난 2002년 한국시장에 진출해 현재 시장점유율 30%를 기록하고 있다. 더블에이가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는 친환경 경영도 있지만, 경쟁 제품에 비해 10% 가량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고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일반 자연목을 사용한 용지는 1g당 300만개의 섬유질이 들어 있지만, 더블에이 제품은 1g당 2200만개의 섬유질이 들어 있다. 더블에이가 펼친 마케팅 ‘노 잼 노 스트레스(No Jam No Stress)’는 이러한 종이의 품질을 강조하고, 걸리지 않는 복사용지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블에이 리파워 리타본 부회장은 “복사할 때 종이 걸림 현상은 복사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이의 품질 문제다. 더블에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배경”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고품질을 추구하는 노력과 친환경 경영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리파워 리타본 부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시장 확대가 아니다. 우리는 경쟁 속 지속 가능한 공존을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 SECTION 02 | 疏通

### 32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



### Special Edition

36

원익 공채1기

Q & A



48

원익 공채1기

INTERVIEW



함께하는 소통

원익人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유머와 소통, 책임감은

## 화학사업부의 원동력!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는 35년 회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서이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발생시키는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온 부서이다. 양산에 있는 지점을 포함한 화학사업부의 매출은 (주)원익큐브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화학사업부의 실적이 전과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하는 팀원들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화학사업부 1,2,3팀은 각각 담당하는 품목과 거래선의 차이를 두고 케미칼 원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제조사로부터 매입해 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된 업무들은 사무실 밖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1,2,3 팀 총 11명의 팀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외근으로 참석하지 못한 박현준 과장을 제외한 10명의 팀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서로를 살갑게 챙기고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끈끈한 팀워크가 느껴졌다. 부서 한 칸에 있는 게시판에는 '김유일 부장의 농담'을 칭찬하는 글귀가 적혀있기도 했다. 그 글귀와 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서혁준 대리는 "팀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고, 상사들이 유머와 위트가 있다. 그리고 김유일 부장님의 유머는 친해져야만 볼 수 있다"며 끈끈한 친목을 드러냈다.

1월에 공채로 입사한 이종찬 사원도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놀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동기인 이호섭 사원 역시 "도를 지나치지 않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항상 잘 가르쳐주신다. 삼촌처럼 챙겨주시니 상담을 하기도 한다"며 실적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 않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했다.

화학사업부 팀원들은 모두 실적에 민감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좌우 구별없는 자유로운 분위



기를 부서의 자량으로 꼽았다. 장태영 부장은 '상하좌우 구별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개개인 모두가 회사의 대표라는 주체적 태도,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의 특성상 사무실에 있기 보다는 주로 거래처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다. 나가면 직책의 상하 관계없이 각자가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순간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가 있다. 그래서 수동적이기 보다는 주체적이다. 상하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 영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팀과의 관계, 즉 좌우의 관계 역시 좋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 ‘미생’은 드라마고 우리가 현실이죠.

진행하는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 드라마 ‘미생’을 재미있게 보았다는 김유일 부장은 “‘미생’ 보다는 우리 부서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다. ‘미생’에서는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분위기가 딱딱하다. 그리고 한 팀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화학사업부의 업무는 전략사업부, 물류 관리팀과의 협력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를 짚어주었다. 또한 박찬중 대리는 “협력과 합심이 중요한 사업이다. 얼마나 빠르게 소통하느냐가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를 하는 직원들 역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학사업부 전체 11명 중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다. 영업이 부서의 중심 업무이고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주희 사원은 “영업에 수반되는 서류



작업을 하는데, 꼼꼼하고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작업은 여성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한 “팀원들이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워킹맘으로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종욱 부장은 “아무래도 남성적인 분위기나 눈치 주는 분위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신경쓰고 배려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화학사업부는 얼마 전까지 매주 월요일 본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곤 했지만, 점차 각자 업무가 바빠져 회식이 거의 유일한 단합 활동이 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팀별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결을 하면서 다시 단합 활동이 활성화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팀별 대항으로 진행된 게임의 결과는 3팀의 우승. 3팀 우승을 두고 팀원들이 서로 티격 태격 농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강영욱 사업부



장도 이 게임 대결을 화학사업부의 여가활동으로 계속 이어가자고 했다고 하니, 팀 전체가 친목, 소통, 협력, 합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이 엿보였다.

#### 2015년, 팀워크와 가능성으로 승부한다!

(주)원익큐브 창립 당시에는 화학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100%를 담당했다. 그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현재는 화학사업부의 실적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사업부의 실적이 곧 (주)원익큐브 전체의 매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들은 자부심 못지 않게 책임감 역시 크게 느끼고 있었다.

서중욱 부장은 “케미칼은 건축, 섬유, 페인트, 전자재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한 가능성도 무궁무진

하다. 현재는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현재 팀원들의 능력이나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새롭게 수익을 창출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태영 부장도 “현재 새로운 영역 진출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소통과 더불어 다이내믹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올 한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각오를 전했다.

글 권은영 · 사진 조인기





톡톡 튀는 talk talk

## 내일을 통해 내일을 말한다

원익이 2015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1기를 모집, 최종 합격한 총 47명의 사원들이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큐앤씨, (주)원익큐브, (주)씨엠에스랩, (주)테라세미콘 등 계열사에 배치돼 지난 3월2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원익의 미래와 함께 할 원익 공채 1기를 소개한다.

# Q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는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 A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ALD OX 1P  
김현철 사원

- 01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02 입사 전에는 원익에 대해 반도체 장비 회사로만 알고 있었지만, 입사 후 반도체 뿐 아니라 의료기기, 건설, 금융 등 다양한 계열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시장에서 곳곳하게 성장하고 있는 멋진 회사로 느껴집니다.
- 06 지금 개발 중인 질화막 ALD 공정을 바탕으로 '저는 ALD 전문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2팀 선행 2P  
김형경 사원

- 01 안개가 낀 듯 흐리던 시야가 여러 업무를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듯 합니다. 생각이 분명해지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05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성장의 가능성'이 바로 원익의 강점입니다.
- 06 정보와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엔지니어는 운영만 잘하고 문제 해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기술개발팀 설계 1P  
박동준 사원

- 02 입사하기 전 원익을 알게 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구가 "회사의 성장과 함께해 온 우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해가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04 설계파트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중 팀장님과 부장님의 도움으로 제조파트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조하는 동료들과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06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World Best 장비를 설계하는 World Best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원익아이피에스라는 숲의 중심에 서는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부 기술영업**  
**서정원 사원**

**05** 타 회사와 차별화 된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임직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원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7** 원익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은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소통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08** 아직은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사업2팀 연구개발P**  
**성기현 사원**

**05** 회사와 개인이 명확한 목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원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목표와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 역시 그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점은 성장 중인 원익에 있어서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6** 공정 엔지니어로서 단순히 공정만을 잘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정 업무를 제 1순위로 다루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장비나 유관 업무를 능히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PE-CVD P**  
**성인혜 사원**

**01** 반도체연구소에 여사원들이 매우 적은데, 뒤처지지 않게 성장하여 원익에 힘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08**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나니 설렘보다 두려움, 걱정들이 컸지만 많은 선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업에 배치되어 벌써 두 달 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인사파트**  
**소병오 사원**

**01**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이 되었고, 꿈꾸던 저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원익, 그리고 (주)원익아이피에스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06** 앞으로 인사 뿐만 아니라 재무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원익의 '별'이 되겠습니다.

**07** 따뜻함과 새생명, 활기찬 기운을 가진 저는 "원익에 찾은 봄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 소통

함께하는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기

Q & A



# Q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사업1팀 영업1P

양진석 사원

01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과 (주)원익아이피에스라는 멋진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취업이라는 힘든 관문을 뚫고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첫 발'을 내디딘 점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합니다.

05 원익은 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06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익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개척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구매팀 구매2P

오정민 사원

02 입사 전 원익은 반도체 및 의료 관련 장비들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생각에 다소 남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다른 기업보다 부드럽고, 자유로우며 직원들 개개인을 존중하는 젊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6 저는 구매팀의 신입사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며 구매관리자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정직과 겸손의 가치를 몸에 지니며 제 살림을 하듯 회사의 살림을 하는 구매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선행설비개발팀 제어기술P

이창현 사원

02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계열사 배치 후, 그리고 OJT 과정을 거치며 치열한 국내 반도체장비업계에서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 미래를 준비하며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06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가치가 원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 원동력은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원익의 핵심가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선행설비개발팀 선행기술P

이호준 사원

05 기업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입니다. 파트 별, 팀 별로 분위기와 업무 스타일은 다르지만, 핵심가치를 필두로 점차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저의 1차 목표는 10년 근속입니다. 단순히 업무기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10년 내 자랑스러운 원익인상 수상 등 회사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07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누구보다 더 앞서기를 갈구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원익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ALD OX 2P  
장현규 사원

05 끈끈한 동지애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일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08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정해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익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선행설비개발팀 제어기술P  
정운영 사원

01 원익이라는 안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있는 기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원익아이피에스와 더 나아가 원익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처음 FAB에 들어가서 선배님과 함께 일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모습에서 말로 표현 못 할 재미와 희열을 느꼈습니다.

06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새로운 차세대 장비의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No.1 장비와 기술력을 획득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제어, 설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ALD OX 2P  
정운호 사원

02 입사 전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에 대한 정보만 있었으나,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통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교육도 받고 동기들과 친해지는 경험을 하며 하나의 '원익'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익의 핵심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06 원익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선배님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것입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2팀 선행1P  
조용일 사원

02 원익 공채 공고를 접하면서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사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 개개인의 역량을 존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원익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5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성이 원익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

함께하는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기  
Q & A



# Q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는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 (주)원익아이피에스

### DS사업본부

#### 차형진 사원

04 저의 멘토이신 유성진 과장님께서 제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06 설계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07 "나는 열정적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빠르게 성장하겠습니다.



## (주)원익아이피에스

### 법무특허팀

#### 최소윤 사원

04 멘토링 활동 중 9층 임직원들께 손 카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총 65장의 카드를 일일이 손으로 쓰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08 입사한 지 100여 일이 흘렀습니다. 동기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선배님들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익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원익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 (주)원익아이피에스

### 개발2팀 S.LSI P

#### 최진희 사원

01 취업난에 시달리는, 오로지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주변 친구들과는 달리 내실이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원익에 입사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익과 함께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05 제가 본 원익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좀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06 저는 원익 안에서 여성 엔지니어로서 입지를 굳게 다지고 싶습니다. 실제로 연구소에 보면 여자 엔지니어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여 10년 후에는 많은 여성 후배 엔지니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 (주)원익아이피에스

### 재무팀 자금P

#### 김다영 사원

01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원익인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05 원익의 강점은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재무팀 회계P**  
**김주연 사원**

**02** 원익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적이고 건강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소통과 일터에서의 행복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지향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6** 제가 지향하는 성장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함께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직무에서의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운 회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기술개발팀 설계2P**  
**이정훈 사원**

**01**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 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회사 선배-동료들과 교류하며 자기개발에도 정진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만 느껴집니다.

**05** 원익의 가장 큰 강점은 '젊다'는 것, 그렇기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세계 시장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경쟁사 Applied Materials와 Tokyo Electron이 합병하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익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부품개발팀 부품기술파트**  
**정현수 사원**

**02** 원익이 아직 과도기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속해있는 (주)원익아이피에스를 보면 회사가 커져가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 원익 안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다양한 테스트 방법들을 프로세스화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품개발팀은 설비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을 공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래서 각 요소 부품들을 테스트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개인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만의 프로세스를 인정받아 후배 엔지니어들이 제 이름이 들어간 표준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주)테라세미콘**  
**공정개발그룹**  
**정은준 사원**

**01** 원익의 공채 1기가 되어 영광입니다. 공채 1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원익을 이끌어나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5** 원익의 강점은 미래에 투자를 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글로벌한 기업이 되어 원익의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06** 어엿한 원익인으로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고, 핵심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주)테라세미콘  
공정개발그룹  
박상만 사원

02 사실 입사 전에는 원익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워낙 기업 홍보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계열사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원익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05 원익의 큰 강점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원익은 세계기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테라세미콘  
H/W 개발그룹  
김건호 사원

03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 목표가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취업 전에는 여러 직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취업을 하고 현업에 배치된 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기계 설계)에서 최고가 되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04 가장 기업에 남는 에피소드는 역시 신입사원 입문교육입니다. 47명의 동기들과 2주간 부대끼며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7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를 즐기면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주)원익큐엔씨  
세라믹사업본부 BD팀  
이창민 사원

02 원익 채용설명회에 참가했을 때, 2주 동안 진행된 입문교육 중 원익의 핵심가치를 배우면서, 원익은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원익의 따뜻한 면모를 관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원익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04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2주 동안 삼성 Display 라인을 내방했습니다. 당시 제품의 End-user를 방문 후 Display 공정관련 교육을 수강하면서 해당 산업을 보다 명확히 이해했지만, 방진복을 4시간 가량 착용한 상태로 공정 라인을 확인했던 경험은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회사에 감사한 마음과 각 계열사 동기들에게 이 같은 경험을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주)원익큐엔씨  
퀴츠제조본부 기술개발팀  
김경덕 사원

02 입사 전에는 원익에 대해 잘 몰랐고, 다소 보수적일거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익큐엔씨 기술개발팀에 배치된 후 직접 경험해보면서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06 제 자리 앞에는 퀴츠제조본부 이병환 전무님의 방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방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주)원익큐엔씨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원익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주)원익큐엔씨  
세라믹사업본부 기술연구소  
김영락 사원

**05**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원익의 강점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국내 1위, 세계 3위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시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낼 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원익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06** 1~2년 동안 분석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석사 과정 동안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라믹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3년 차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연구하여 특허나 논문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원익큐엔씨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주)씨엠에스랩  
운영지원팀  
박지현 사원

**03** 웃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 이 무엇보다 재미있고 기쁩니다.

**04** '조직활성화' 워크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07** "박지현은 비타민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비타민처럼 힘을 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씨엠에스랩  
재무팀  
유은영 사원

**02** 반도체 장비 뿐 아니라 가스, 특수소재 영업까지 다양한 사업군을 갖춘 회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입사해보니 (주)씨엠에스랩, 신원종합개발(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원익엘앤디(주) 등 훨씬 넓은 포트폴리오에 놀랐습니다.

**04** 지난 4월14일 (주)씨엠에스랩의 봄 소풍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같이 조조영화를 관람하고, 조원들끼리 나름의 점심 먹방 대결도 하고, 공원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김준우 사원

**01** 이제 막 현업에 적응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것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 내의 실무를 알아가면서 점차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신선하고 보람찬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06** 품질관리에서 끝나지 않고 품질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품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 (주)원익머트리얼즈

##### 제조기술팀

##### 노경민 사원

03 학생일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그에 따른 제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04 부서 배치를 받은 후 선배님과 함께 했던 멘토링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퇴근을 한 뒤 사우나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뒤 가볍게 탁구 한 게임을 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06 (주)원익머트리얼즈 제조기술팀의 엔지니어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꾸준히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어 원익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 구매팀

##### 최현석 사원

01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기 때문에 설렘 만큼이나 열정으로 푹푹 뭉쳐 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05 원익에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경력직 분들이 많습니다. 인적 다양성은 원익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8 아직 직무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린 마음을 지녔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 생산지원파트

##### 김영민 사원

04 입문교육 마지막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입문교육을 받으면서 동기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 명씩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05 원익의 강점은 발전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익은 창립 이래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계열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계열사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원익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큰 성장을 이뤄낼거라 생각합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 환경안전팀

##### 신우정 사원

04 멘토 권효원 과장님과의 에피소드가 많이 생각합니다. 처음 환경안전팀 배치 후 권효원 과장님께 업무를 배우고, 신입사원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면서 회사생활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6 20년 후 (주)원익머트리얼즈가 Gas업계 환경안전(EHS)분야에서 최고가 된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입사원으로서 폐수/폐기물관리, MSDS작성, 환경법규 대처 등 환경안전팀의 기본 업무를 습득하고 현장에 대해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고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살리며 원익과 함께 Global EHS Leader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국내영업팀**  
**김형규 사원**

**01** (주)원익머트리얼즈의 한 가족이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더욱이 원익 공채 1기로 입사하게 되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입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02** '원익'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 중 제 마음을 흔들었던 점은 핵심가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국내 기업들은 '주주'나 '고객'을 부르짖고 있었으나, '원익'만은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채 1기 채용에 좋은 소식을 들었고 입문교육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육의 테마는 역시 핵심가치 내재화였습니다. 입사 전에는 추상적으로 테두리를 그려 놓았다면, 입문교육을 통해 진정한 '자유, 소통,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고 '원익'이라는 기업의 그림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S-Project팀**  
**정현중 사원**

**03** 책임감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생활은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만 인정받으면 되는 생활이었다면 입사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밖에서는 제가 곧 (주)원익머트리얼즈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08** 신입사원의 자세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에 대한 열정, 회사와 함께 커나가는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나라는 생각으로 주인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항상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가 되길 서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  
**박새미 사원**

**03**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입사 후 직접 실험을 하고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 임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점유, 고품질 제품 생산 능력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진정한 강점은 (주)원익머트리얼즈를 구성하고 있는 임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슈라 해도 간단명료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사장님과 해결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임직원분들이야말로 바로 최근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높은 성장률에 기여한 진정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  
**김태형 사원**

**04** 신입사원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진행했던 신입사원 연수는 다양한 교육 및 모의경영,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동기들과 서로 협심하며 마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토대로 한 연극은 처음으로 도전해 보았지만, 매우 의미 있었고 준비기간 내내 즐겁게 준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연수를 계획하고 저희와 연수기간 내내 함께하신 기획조정실 강무성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05** 원익의 강점은 반도체 4사를 포함한 여러 계열사들과 매우 유기적인 SYSTEM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바람에도 심히 흔들리지 않고 원익만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01 간략한 입사소감.
- 02 입사 전 '원익'에 대한 생각과 계열사 배치 후 느끼는 '원익'에 대한 생각은?
- 03 '원익' 입사 전 자신의 모습과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 04 현재까지 '원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or 기억에 남는 선배나 동료는 있다면?
- 05 '원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07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 08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 (주)원익머트리얼즈

##### 생산지원파트

##### 김민식 사원

04 아무래도 각각 계열사 배치가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한 첫 출근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날 퇴근 후에 동기들이 모여 마신 맥주 한 잔은 지금까지 먹어본 중 가장 시원하고 짜릿했습니다.

05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초기 어색함을 쉽게 없앨 수 있도록 반겨주셔서 빠르게 사내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때론 선생님처럼, 친한 형처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6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라는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원익머트리얼즈를 더욱 폭넓은 전자소재까지 다루는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선봉대장이 되겠습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 S-Project팀

##### 장선정 사원

01 원했던 신사업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03 말은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배치를 받고 선배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일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답게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05 제가 근무하는 (주)원익머트리얼즈는 현재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회사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원익의 강점이자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주)원익큐브

##### 건재영업팀

##### 강지민 사원

02 입사전에는 막연한 기대감과 열정 뿐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선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겼으며 원익인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5 원익의 강점은 향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 나는 소나무다. 제 큰 키처럼 우직하게 솟은 소나무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 (주)원익큐브

##### 실리콘사업부 영업팀

##### 김성욱 사원

03 입사 전에는 팔로우업과 셀프리 더함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원익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님들을 모시고 앞에서 (주)원익큐브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밤을 새며 같은 조 동기들과 자료를 수집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어느 때보다 잠도, 시간도 부족했지만 오로지 열정 하나로 동기들과 함께 준비했던 때가 지금은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부 수지영업2팀  
류찬하 사원

01 원익의 새로운 '루키' 류찬하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저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이지만, 원익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며 추후의 제 미래와 원익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 나가는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취업준비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체육복을 즐겨 입으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입사 이후에는 월급도 받으며 운동을 하고 옷 스타일에 신경도 쓰는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05 자유, 소통, 행복 아래, 실제로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와 서로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매우 크나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 화학1팀  
이종찬 사원

02 입사 전에는 어떤 이미지인지 정보가 많이 없어서 가늠이 안되었지만, 입문교육부터 계열사 배치 후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생각보다 매우 분위기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06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슈퍼파워를 내뿜는 원익인이 되겠습니다. '이종찬'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정받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익큐브  
무역팀  
이지훈 사원

04 화학3팀 이호섭 사원은 특유의 솔직함과 털털함으로, 언제나 웃음을 주는 동기사원입니다. 덕분에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6 지·덕·체를 고루 갖춘 무역인,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원익인이 됩시다!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  
이호섭 사원

02 (주)원익큐브는 '자유, 소통, 행복'의 원익 핵심가치가 잘 이행이 되는 회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06 5년, 10년 후에는 (주)원익큐브의 기존의 화학사업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부 신설을 건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귀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창한 꿈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회사생활에 임하겠습니다.

07 저는 (주)원익큐브의 '해피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소풍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1기 INTERVIEW  
(주)원익아이피에스



함께 성장하는 인재

## 원익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키운다

원익 공채 1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입사한 신입사원들. 그 중 가장 많은 인원(22명)이 모여있는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각 부서별 대표 신입사원들을 만났다. 반도 체사업본부 사업1팀 영업1파트 양진석 사원, 기술개발팀 설계2파트 이정훈 사원, 개발2팀 선행2파트 김형경 사원, 생산기술센터 부품개발팀 부품기술파트 정현수 사원, DS사업본부 장비개발팀 설계파트 차형진 사원, 구매본부 구매팀 구매2파트 오정민 사원,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인사파트 소병오 사원이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이들이 전한 '내가 보는 원익', '신입사원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보자.

지난 4월16일 (주)원익아이피에스 본사에서 만난 7명의 원익 공채 1기 사원들은 먼저,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입사하기 전 갖고 있던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이 입사한 후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 내 분위기는 딱딱하고, 선배들은 어려운 존재' 일거라는 생각이 (주)원익아이피에스에



개발2팀  
선행2파트  
김형경 사원



구매본부  
구매팀  
구매2파트  
오정민 사원



입사한 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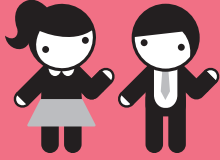
양진석 사원(사업1팀 영업1파트)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때 회장님께서 청바지를 입고오신 모습을 보고, 원익이 추구하는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주)원익아이피에스



# 함께하는 소통

Special Edition

원익 공채1기 INTERVIEW  
(주)원익아이피에스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인사파트  
소병오 사원

부서 배치를 받고 현재까지 두 달 여간 일해본 느낌도 다르지 않다. 개성이 뚜렷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사원(구매팀 구매2파트)도 “처음에는 반도체, 의료장비 관련 회사라는 이미지가 다소 딱딱한 느낌이 있었지만, 입사 후 업무를 배우는 과

정에서 젊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조직문화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일하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월 22일 (주)원익아이피에스 배치 이후 5주간의 교육을 받고, 지난 3월2일부터 부서로 출근해 현재 한창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선배, 동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오정민 사원은 “제가 속한 구매파트는 DS사업본부 장비개발팀과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멘토 손성숙 과장님과 DS사업본부 장비개발팀 유성진 과장님, 저와 동기인 차형진 사원이 삼겹살 회식을 하기도 했다”며 “부서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점이 좋았다”고 전했다. 또 양진석 사원은 “영업파트는 업무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타 부서를 돌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반도체사업본부  
사업1팀  
영업1파트  
양진석 사원

(주)원익아이피에스는 부서 간 소통이 잘 되고 있어, 저 역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익 공채 1기라는 자부심, 끈끈한 동료애’

이날 인터뷰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 각 부서별 대표 신입사원들은 원익 공채 1기라는 자부심과 동료애를 과시했다. 특히 (주)원익아이피에스에 근무하는 신입사원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많아 출근하면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네이버 밴드 활동(전 계열사 공채 1기)을 활발히 하며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팀  
설계2파트  
이정훈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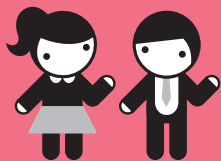


생산기술센터  
부품개발팀  
부품기술파트  
정현수 사원



소병오 사원(인사팀 인사파트)은 “우리가 원익 공채 1기인 만큼, (주)원익아이피에스를 비롯한 전 계열사 임직원분들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각 계열사에 있는 동기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며 성장하고, 원익 공채 1기 만의 문화를 만들어갔음 좋겠다”며 “우리가 잘 해야 향후 2기, 3기 후배들도 잘 따라오지 않겠나”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오정민 사원과 연수원부터 계속 같은 조에서 함께 했는데, 지금도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층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친다.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면서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 든든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정현수 사원(부품개발팀 부품기술파트)의 경우, 신입사원 연수 때 부끄럼을 타는 성격 탓에 동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오히려 지금은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타 계열사에 있는 동기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원익아이피에스가

### 글로벌 No.1이 되는 날까지, 파이팅!”

신입사원 특유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 이들은 인터뷰 내내 원익의 발전 가능성과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야심찬 각오를 전했다. 이정훈 사원(기술개발팀 설계2파트)은 “엔지니어로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 갖추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부끄럽지 않은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고, 김형경 사원(개발2팀 선행2파트)은 “공정개발에 지원한 만큼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 반도체 흐름을 읽어내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차형진 사원은 “설계파트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무이기에 아직 배울 점이 많은데, 사내·사외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는 점이 너무 좋다. 많은 기회를 주시는 만큼 원익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양진석 사원은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주)원익아이피에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현수 사원은 “무엇보다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함께 있던 동기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두 달 여간 접한 원익의 문화와 글로벌 No.1 기업으로 우뚝 설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전한 (주)원익아이피에스 각 부서의 신입사원들. 그리고 이날 인터뷰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원익 공채 1기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원익 공채 1기 사원들 모두가 향후 원익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DS사업본부  
장비개발팀  
설계파트  
차형진 사원

## SECTION 03 | 幸福

54 **Zoom in**  
(주)원익IPS  
불링동호회 '엔도르핀' (endor+pin)



58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영업1팀  
조영민 과장(유럽 여행)



가슴벅찬 **행복**

원익人的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 짜릿한 스트라이크는 우리들의 행복 에너지

(주)원익아이피에스 볼링동호회 '엔도르핀' (endor+pin)은 올해 1월 창단한 '따끈따끈' 한 동호회다. 지난해 2월 입사한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의 김호남 대리가 회사 내 동료 및 선후배들과 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단에 나선 '엔도르핀'은 활동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19명의 회원 모두 나날이 실력을 발전시켜가며 서로간의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지난 4월8일 저녁 7시30분,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명신볼링장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 볼링동호회 ‘엔도르핀’ 회원들이 퇴근 후 모이기 시작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이 곳에 모여 볼링을 치는 이들은 먼저 개인전을 펼쳐 당일 참가한 회원들의 실력을 가늠한 뒤, 다시 두 팀으로 나눠 경기를 펼친다. 이날 경기에는 볼링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 김효남 대리를 비롯해 총무직을 맡고 있는 강정우 대리(연구개발파트), 이주경 대리(환경안전파트), 이호준 사원(DS사업부 전장파트), 한영재 대리(반도체연구소 개발1팀), 김지원 사원(소프트웨어파트), 성기현 사원(연구개발파트)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냈다.

아직 그 흔한 동호회 단체복도 없고, 첫 회식자리도 얼마 전 가졌다는 초창기 동호회지만, 이날 경기에 임하는 회원들의 자세나 분위기, 동호회를 이끌어가는 회장의 열정은 그 어떤 회사의 활성화된 동호회 못지 않은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입사하기 전 6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볼링동호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김효남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동료들과 퇴근 후 함께 운동하며 즐겁게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며 ‘엔도르핀’ 창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엔도르핀’의 본격적인 경기는 A팀(이주경 대리, 이호준 사원, 김지원 사원, 성기현 사원)과 B팀(한영재 대리, 김효남 대리, 강정우 대리)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4:3으로 인원이 맞지 않아 B팀은 가산점 50점을 받기로 하고 경기를 시작했다. 먼저, A팀은 이주경 대리의 선전으로 초반부터 점수를 올렸다. 이주경 대리는 1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시작으로 2프레임 첫 구에서 9점, 두 번째 구에서 스페어 처리, 그리고 이어진 터키(세 번 연속 스트라이크) 기록으로 이미 6프레임에 총점 125점을 달렸다. 여기에 A팀 김지원 사원이 1, 2프레임에서 몸을 풀고 3프레임부터 스페어 처리를 하며 이후 더블(두 번 연속



스트라이크)과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B팀과의 점수차가 더욱 벌어졌다. “오늘따라 유난히 평소보다 점수가 너무 낮다”고 내내 아쉬움을 토로하던 A팀 이호준 사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점수를 올린 A팀은 묵묵히 스페어 처리, 스트라이크 기록을 남긴 성기현 사원까지 가세해 총점 550점을 기록했다.

초반 A팀 이주경 대리가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B팀 김효남 회장도 평소보다 낮은 점수에 아쉬워했다. 연습 경기에서도 여러 번 스트라이크로 실력을 과시했던 김효남 회장은 본 경기에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오늘만큼은 절대 꼴찌를 기록할 수 없다”고 이 악물고 경기에 임한 강정우 대리가 10프레임 동안 총 세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 여기에 한영재 대리가 6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 이후 터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B팀은 총점 420점에 가산점 50점을 더해 470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사실, 경기 시작 전 B팀은 인원이 한 명 모자랐음에도 A팀에 비해 연습 경기 결과가 좋아 50점의 가산점만 부여받기로 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늘 사보에서 취재를 나온 덕분에 평소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는 A팀 이주경 대리의 선전으로 결국 A팀이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 세심한 배려와 격려, 실력도 재미도 UP!

(주)원익아이피에스 볼링동호회 '엔도르핀'에는 동호회를 통해 볼링을 처음 접한 회원들이 있다. 김효남 회장은 이들이 볼링에 재미를 느끼고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세와 규칙을 설명해주는 것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회원들을 격려한다.

특히 김지원 사원(소프트웨어파트)의 경우 볼링동호회를 통해 볼링을 처음 접한 후 짧은 시간에 실력이 일취월장 했다. 이에 사비로 볼링용품도 벌써 다 구입했을 정도. 그는 “김효남 회장







을 비롯한 회원들의 격려로 볼링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볼링을 즐기고 싶지만 바쁜 업무로 쉽지 않은데, 동호회 활동은 꼬박꼬박 참석하려 노력한다. 스트레스도 풀고 직원들과 운동도 할 수 있어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한영재 대리(반도체연구소 개발1팀)는 볼링동호회 활동을 한 이후 성격도,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고. 한영재 대리는 “이전에는 마라톤이나 등산 등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했는데, 볼링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기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운동이 처음

인데, 혼자 하는 운동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원익아이피에스 볼링동호회 ‘엔도르핀’은 올해 창단한 동호회인 만큼, 앞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할 예정이다. 김효남 회장은 “한 달에 두 번 동호회 경기 때마다 개인별 점수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이나 볼링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 모두 동호회 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열리는 오산지역 기업 동호회 대항전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인원도 확충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방문수



##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북돋아준 기회”

# EUROPE



유럽 배낭여행 후기  
(주)원익머트리얼즈 영업1팀  
조영민 과장(유럽 여행)



원익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통한 변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지난해 10월 (주)원익머트리얼즈 영업1팀 조영민 과장이 한 달여의 일정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원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온 조영민 과장은 이번 유럽 배낭여행이 “보다 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북돋아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영업1팀 조영민 과장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30박31일의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을 다녀왔다. 그는 이번 여행에 대해 “문화적 최고의 부흥기였던 르네상스 시대를 둘러볼 수 있는 대표적 나라들을 여행지로 정했다”며 “선조의 문화 유산을 현재까지도 잘 간직하고 보존해온 유럽 국가들의 지혜와 자연친화적인 창의적 건축물들을 눈으로 익히고 느낌으로써 삶의 지표에 좀 더 진취적이며, 열린 사고에 큰 도움을 얻고자 이번 배낭여행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지역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Underground를 타고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 버킹엄 궁전.

커다란 나무 숲과 조화를 이룬 주변 경관은 여왕의 거주를 떠나 버킹엄 궁전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 런던

### 템즈강

산업혁명 이후, 하루 수백 척의 배가 오고 간다는 템즈강. 여느 나라에도 있음직한 강이지만, 템즈강을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주변의 건축물이었다. 웅장한 시계탑 빅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관람차 런던아이, 그리고 런던다리는 평화로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 런던

### 그리니치

런던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리니치는 세계 표준시로 유명한 곳이다. 경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해시계를 볼 수 있었는데, 장영실의 해시계도 한 칸에 진열되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다. 런던 도심을 떠나 만난 그리니치는 평화로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 프랑스

### 파리

프랑스 파리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 중심에 우뚝 서있는 에펠탑과 세느강은 낮에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 밤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최고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고풍스러운 역사와 다양한 인종,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도시로 기억된다.



## 독일

### 뮌헨, 하이델베르크, 뉘른베르크

사실 여행 막바지에 일정이 추가됐던 독일은 생각지 않게 방문하게 되었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전쟁으로 많은 유서 깊은 건물들이 유실되었지만, 그 나름대로 깊은 멋을 간직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과 세계 최고의 자랑하는 맥주 또한 인상 깊었다.



## 체코

### 프라하

체코의 중심이며 1,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덕분에 대표적인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거리마다 마주친 악사들은 ‘낭만의 도시’ 프라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프라하는 물가도 저렴해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이탈리아

###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로마

세계지도 속 길게 뻗은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고대 로마의 유적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찬란한 문화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여행 기간 중 볼거리가 제일 많았던 곳이다. 그 덕분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종일 걸으며 바쁘게 돌아다녔다. 볼거리가 많았던 만큼 체력도 많이 소모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지인 것 같다.





## 스위스

### 루체른, 인터라켄

보름이 지난 시점에 만난 스위스는 여행에 지친 심신을 풀기에 적격인 나라였다.

‘자연 휴양림’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한 스위스는 이전에 방문했던 나라와는 다른 공기와 맑은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내게 최상의 힐링을 선물해주었다.



###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된 해외 배낭여행

조영민 과장은 “해외 배낭여행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임직원들이 이러한 기회의 장을 통해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를 이어간다면, 원익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일류기업으로 우뚝 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달간의 짧고도 긴 여정을 통해 그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배워올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과 성취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북돋아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원익의 더 큰 성장에 함께하는 원익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6 LIFE STORY 4 Musical PHANTOM



뮤지컬 '팬텀'이 31년간의 기다림 끝에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시작한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대표작인 '오페라의 유령' (1910)을 원작으로 한다. 뮤지컬 '팬텀'은 그동안 여타 작품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팬텀의 비밀스러운 유년기 시절을 깊이 있게 다루며, 흥미로운 캐릭터와 장면들을 추가해 개연성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해냈다. 특히 제라드 카리에르와 벨라도바의 사랑을 정통 클래식 발레로 표현한 장면은 뮤지컬 '팬텀'의 백미가 될 것이다. 드디어 국내에서 만나는 뮤지컬 '팬텀'은 2015년 4월28일부터 7월26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 최고의 '팬텀'을 한국에서 만나다

뮤지컬 '팬텀'은 1991년 미국 월드 프리미어 당시 언론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미국 전역에서 연속 매진 행렬 속에 6년간 600회 이상 공연됐다. 또한 독일, 캐나다, 호주 투어에서도 크게 성공한 '팬텀'은 2010년 일본 다카라즈카에서의 공연에서 전석 매진의 신화를 달성했고, 최근에는 2013년 영국에서 프리미어를 가지며 시대를 초월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한국 초연에서는 서정적이면서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한국 프로덕션만을 위해 모리 예스톤이 작곡한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의 요소를 더한 편곡을 통해 '팬텀'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네 곡의 새로운 넘버 중 두 곡은 '팬텀'의 풍성한 하이바리톤 음색과 캐릭터가 돋보이는 드라마틱한 곡이며, 나머지 두 곡은 소프라노의 고난도 기교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크리스틴 다에'의 곡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프리마 발레리나가 선보이는 고혹적인 전통 발레, 파리의 오페라극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는 관객에게 뜨거운 정서적 울림을 안겨줄 전망이다.

###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무대



뮤지컬 '팬텀'은 뮤지컬, 클래식, 발레 등 한 무대에서 볼 수 없는 각 분야별 최고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출연진 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지존 류정한, 영혼을 울리는 보컬리스트 박효신, 감미로운 미성의 크로스오버 뮤지컬 카이가 '팬텀' 역을 맡았다. 또 전 세계가 인정한 오페라의 여제 임선혜, 최고 음역대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가창력의 뮤지컬 배우 임혜영, 호소력 짙은 서정적인 음색의 소프라노 김순영이 출연하며, 최정상급 발레리나 김주원과 황혜민이 함께해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팬텀'은 뮤지컬 '엘리자벳',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달아 흥행시킨 최정상의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이 작품을 총지휘하며, '지

# 뮤지컬 ‘팬텀’

## 역사적인 한국 초연

킬 앤 하이드’, ‘원더랜드’, ‘리틀 우먼’, ‘스칼렛 뎀퍼넬’ 등의 작품에서 빼어난 음악적 완성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김 샤른베르크가 편곡을 맡는다. 여기에 한국 창작 뮤지컬의 주옥 같은 음악을 탄생시킨 장소영 음악감독, ‘레베카’의 안무가 제이미 맥다니엘, 디즈니 온 아이스 프로덕션 ‘겨울 왕국’의 의상 디자이너 그레고리 포플릭 등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무대 위 펼쳐지는 19세기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

다채롭고 로맨틱한 의상과 ‘팬텀’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가면까지!

뮤지컬 ‘팬텀’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격동기였던 19세기 말을 배경으로 낭만적이면서 현대적인 당시의 프랑스 파리를 조화롭게 표현한다. 실제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환상적인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3층 구조의 웅장한 무대 세트에서 캐릭터들은 각 층을 오가며 미스터리한 사건을 긴박감 있게 그려내며 특수 효과와 첨단 무대 기술을 동원, 환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꿈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의 거대한 상들리에는 400여 개의 전구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원작 대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눈 부시게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의 낭만적인 밤거리와 아르누보 양식으로 지어진 레스토랑과 찻집 등 예술적인 정취로 가득했던 19세기 파리 거리가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된다.



뮤지컬 ‘팬텀’에는 약 200벌 이상의 다채롭고 로맨틱한 의상들이 등장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오페라 극장 밖의 산뜻하고 가벼운 분위기의 의상과 극

장 내에서 착용했던 과장되고 화려한 의상, 극 중에서 공연되는 리콜레토,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작품 속 실제 무대 의상까지, 다양한 의상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여타 다른 작품에서 팬텀이 한 종류의 가면만 쓰고 나오는 것과 달리 뮤지컬 ‘팬텀’에서는 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면을 착용한다. 이를 통해 팬텀의 분노와 사랑, 승리감과 비통함 등 희로애락을 명확하게 표현해 그의 내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뮤지컬 ‘팬텀’

공연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기간 : 2015년 4월28일 ~ 7월26일  
공연시간 : 화, 목, 금 - 저녁 8시  
수 - 낮 3시, 저녁 8시  
토, 일, 공휴일 - 낮 2시, 저녁 6시30분  
관람료 :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제작 : (주)EMK뮤지컬컴퍼니  
문의 : 1577-6478





6  
6

LIFE STORY  
Exhibition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속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 어벤져스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된다.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글로벌 전시가 월드투어 첫 번째 도시로 서울을 확정 짓고, 오는 5월1일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획 전시를 갖게 된 것.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글로벌 전시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 과학에서 수학까지, 최첨단 교육 전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교육 전시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_Marvel's Avengers S.T.A.T.I.O.N(Scientific Training and Tactical Intelligence Operative Network)은 지난해 5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전시에서 흥행몰이를 하며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체험형 전시이다.

'어벤져스 스테이션'의 포인트는 영화 '어벤져스'를 바탕으로 최첨단 장비와 영상,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체험형 전시로, 영화 속 모든 흥미를 토대로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체험을 직접 하게 하는 등 어벤져스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블은 '어벤져스 스테이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를 자문 파트너로 하여 항공, 유체역학 기반의 STEM 교육 철학을 담아냈다. (STEM 교육: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과학, 수학 기반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와 흥미를 높이는데 필요한 창의성과 감성을 일깨우는 체험형 교육 방식)



## 직접 경험하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스테이션'은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직접 스테이션 본부의 요원이 되는 기회를 갖고, 훈련 받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된 채용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관람객을 어벤져스 세계로 이끈다.

관람객은 입장 시 받은 개인 ID카드를 각 미션 수행에 활용해 '브리핑룸', '아이언맨 연구소', '헐크 실험실', '토르의 우주전망대' 등 각각의 공간에



# 마블의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 월드투어 첫 번째 도시 '서울' 확정



서 아이언맨 수트를 작동시키는 법, 아스가르드를 찾기 위해 별들을 지도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르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바뀌는 신경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캡틴아메리카의 힘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또, 정보 파일, 기밀 연구 자료, 어벤저스 외 다른 영웅들의 탄생 역사에 대한 실험을 체험하게 되고, 영화 '어벤저스' 내용 중 지구 침략의 원인이 된 무한에너지원 큐브, 왕좌에 오른 로키의 소품들, 로키와 함께 지구를 공격하려 온 외계 종족 치타우리 등 영화에서 나온 주요 오리진얼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전시, 판매할 예정 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4월과 5월, 대한민국은 '어벤저스' 열풍!



이처럼 오는 5월1일 마블 '어벤저스 스테이션'이 오픈을 확정된 가운데, 바로 전 주인 4월23일에는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저스 2) 역시 전세계 최초 국내 개봉해 4월과 5월 대한민국은 '어벤저스' 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번 전시를 제작하는 (주)라이브모션픽처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국내 ‘어벤저스 스테이션’은 뉴욕 전시공간 2배 규모로 진행되고,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최신 세계관을 관람할 수 있으니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벤저스 스테이션'은 오는 5월1일부터 오픈 런으로 용산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마블 '어벤저스 스테이션'

전시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 2015년 5월1일 ~ OPEN RUN  
전시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입장마감 5시)  
관람료 : 성인(14세이상) 25,000원  
          소인(4세~13세) 20,000원  
원작 : Marvel Entertainment  
주최 : Victory Hill Exhibition,  
          (주)라이브모션픽처스엔터테인먼트  
문의 : 1661-2024  
공식판매처 : (주)여행창조  
공식홈페이지 : [www.avgstn.co.kr](http://www.avgstn.co.kr)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따뜻한 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에 집중하거나 주말이면 야외활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잠시, 오후만 되면 물려오는 졸음과 피로감, 소화불량, 식욕 저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봄이 되면 따뜻한 온도와 일조량에 따라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로 인한 생리적 불균형이나 또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불균형이 바로 '춘곤증'의 원인일 수 있다.

춘곤증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봄나물을 섭취하면서 활발한 신진대사로 인해 많이 소비되는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봄나물에는 비타민 A, B, C와 무기질 등이 많이 함유돼 있어 입맛을 돋우고 피로 해소에 좋아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이다.

봄나물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은 후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소금은 되도록 적게 넣고 들깨가루나 식초 등을 넣는 것이 좋다. 특히 도로변이나 하천변에서 자생하는 쑥, 냉이 등 야생 봄나물은 중금속 오염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나른한 봄, 춘곤증 이겨낼 봄나물의 효능

## 냉이

냉이는 위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소화를 촉진,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다. 냉이에는 비타민 C와 칼슘, 철분 성분이 풍부한데, 이런 성분은 지혈과 산후출혈 등을 처방하는 약재료로도 사용된다. 또 눈의 피로에도 효과가 있다. 주로 국이나 나물로 조리해 먹는다.

## 달래

마늘과 비슷한 달래는 빈혈과 동맥경화,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소화기능 향상, 면역 강화에 효과적이다. 달래에는 비타민 A, B, C와 칼슘과 칼륨이 많고,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과 살균작용을 한다. 찌개 보다는 무침이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조리 시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비타민C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 쑥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액순환 개선, 냉증 치료, 감기 예방, 설사, 생리불순 등에 효능이 있다. 쑥에는 칼슘, 인, 철분 등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A, C가 풍부하며 배가 아프거나 신경통에도 좋아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쑥은 찌개, 전, 떡, 차 등으로 먹을 수 있으며, 억센 쑥은 쑥뜸으로 사용하거나 술을 담그기도 한다.

## 돌나물

돌나물은 식욕을 돋워주고 간과 신장에 좋고, 체내독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으며 항암효과가 있다. 특히 비타민 C와 수분, 인산,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감기 예방, 갱년기 증상 개선, 골다공증 예방,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돌나물은 주로 물김치나 샐러드, 초고추장 무침 등으로 먹는다.

## 취나물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좋다. 취나물에는 비타민 A, C, B1, 나이신, 필수아미노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두통,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된다. 취나물은 말려서 묵은 나물을 만들기도 하고 쌈, 무침, 장아찌 등으로 먹는다.

## 참나물

쌈싸름한 맛과 은은한 향의 참나물은 고혈압, 지혈, 신경통 등의 증상을 완화한다. 무기성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며, 데쳐서 나물로 무쳐먹거나 겉절이, 샐러드, 쌈 등으로 먹는다.

## 두릅

두릅은 혈당강화 작용이 있어 혈당 조절, 면역 강화, 신장병, 위장병에 효능이 있다. 두릅에는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C, 지방, 당질, 섬유질, 무기질,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두릅에는 비타민 C가 많아 머리를 맑게 하고 피로 해소에 좋으며,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두릅은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전이나 튀김, 꼬치 등으로 먹는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비타민 파괴를 막는다.





ECONOMY

7  
0

LIFE STORY  
Economy  
첫월급관리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장인으로서 인생 2막을 연 사회 초년생들.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당당히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매월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사고 싶었던 것들, 꼭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나 여행지를 생각하는 등 한창 나름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을 때지만, 첫 월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의 월급,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2015년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시작한 원익 공채 1기 신입사원들 역시, 월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지출해야 할 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결혼과 출산, 양육, 주택구입, 은퇴자금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한다는 자세로 장기 인생설계를 해보자.

## 의료실비보험은 기본

20~30대 초반까지는 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와 닿지 않을 때다.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면 병원을 찾는 일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의 필요성이 와 닿는 시점이 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사고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 보험 만큼 아쉬운 것이 없고,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디스크 관련 질환의 경우에는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으면, 이후 디스크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 당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꾸준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5년내 가입이 어렵다.

여러 보험 상품들이 있으나, 그 중 의료실비보험은 필수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은 실제 병원비와 통원 치료비의 9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 본인부담액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하루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망이나 암, 기타 상해나 질병 등의 보장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해 장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 보험이나 사망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의료실비보험과 묶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므로, 여러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액과 가입금액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직장 생활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곧 다가올 결혼 준비, 내 집 마련의 목적도 있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도 가능해 재테크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수도권지역 주택 청약 자격은 1년 동안 12회 납입금을 내면 1순위를 부여한다.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고려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라는 위험이 있다. 매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제할 수 있기에 이용하게 되지만, 결국 지출 통제가 어려워 자칫하면 월급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빠져나가고,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또 한, 체크카드는 300만원 한도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같은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 연금저축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은 세테크 전략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데,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면 거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하는 습관

흔히 하는 실수가 월급에서 꼭 필요한 지출을 한 뒤 남은 돈을 저축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돈을 관리하게 되면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종잣돈이 없어 투자도 무의미해진다. 사회 초년생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강제 저축' 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습관화 해야 한다. 재테크 수익률이 좋더라도 종잣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므로, 많은 돈이 있어야 좀더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재테크의 기본은 종잣돈 마련이므로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또 비상자금의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은행통장보다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의 CM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단기자금 관리는 은행 예적금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의 경우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므로 사회 초년생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5년 봄호 원익인 통권 42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 s'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주)원익 | 고건호 |
|       | 이기복 |

---

---

|            |     |
|------------|-----|
| (주)원익아이피에스 | 권기웅 |
|            | 차유리 |

---

---

|          |     |
|----------|-----|
| (주)원익큐엔씨 | 도현수 |
|          | 이민희 |

---

---

|            |     |
|------------|-----|
| (주)원익머트리얼즈 | 권봉진 |
|            | 신희숙 |

---

---

|           |     |
|-----------|-----|
| (주) 테라세미콘 | 최낙준 |
|           | 김재광 |

---

---

|          |     |
|----------|-----|
| (주) 원익큐브 | 진종언 |
|          | 윤세련 |

---

---

|           |     |
|-----------|-----|
| (주) 씨엠에스랩 | 진주식 |
|           | 박지현 |

---

---

|         |     |
|---------|-----|
| (주) 위닉스 | 안희태 |
|---------|-----|

---

---

|           |     |
|-----------|-----|
| 원익엘앤디 (주) | 김기현 |
|           | 윤성욱 |

---

---

|            |     |
|------------|-----|
| 신원종합개발 (주) | 현승훈 |
|            | 한영석 |

---

---

|          |     |
|----------|-----|
| 신원레저 (주) | 남영은 |
|----------|-----|

---

---

|             |     |
|-------------|-----|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 윤용인 |
|-------------|-----|

---

---

|       |     |
|-------|-----|
| 기획조정실 | 김동철 |
|       | 서재원 |

---

비접촉 비수술 비만치료

## 고주파 심부열 지방파괴

VANQUISH™  
밴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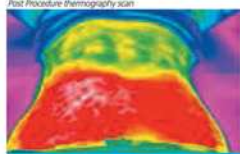
- ☛ 지방세포자연사(Apoptosis) 유도
- ☛ New 어플리케이션 Flex 출시 예정
- ☛ 광범위한 영역(배와 옆구리를 한번에)
- ☛ 소모품이 필요 없는 의료기기

한국 식약처 허가  
-비만환자의 허리둘레 감소

TISSUE  
SELECTIVITY



UNIQUE  
THERMAL PROFILE



- Selective Focused-field radio frequency
- Non-invasive, Non-contact, No downtime
- No anesthesia or pain medication
- The largest treatment area

‘밴핏’, ‘청담동 셀럽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삼평동) 원익빌딩 6, 7층  
TEL : 031-8038-9000 FAX : 031-8038-9098 www.wonik.co.kr